

6. 다음 ㉠~㉣을 () 안에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 ㉠ 길을 가는 자는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는 자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므로 어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리오.
- ㉡ 좌우가 반대로 되고 본말이 뒤집혀 보이므로 어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리오.
- ㉢ 한낮에는 난쟁이 땅딸보가 되고, 저물녘에는 꺾다리 거인이 되므로 어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리오.

옛것을 모방하여 글을 짓되 마치 거울이 물건을 비추듯 하고, 물이 형체를 묘사한 듯하다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
 ()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 하다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
 ()
 그림이 형체를 묘사하듯 하다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
 ()
 그렇다면 결국에는 비슷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인가? 나는 말한다. 도대체 어째서 비슷하기를 추구하는가? 비슷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지만,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니다.

- ① ㉠-㉡-㉢
- ② ㉠-㉢-㉡
- ③ ㉡-㉢-㉠
- ④ ㉢-㉠-㉡

답) ③. [난이도 중, 글의 순서] - 예상한 문제 유형
 거울과 물에 물건을 비치면 좌우가 반대되는 것이다.(㉡)-
 그림자는 낮과 저물녘에 해의 위치에 따라 작게도 또는 크게도 된다.(㉢) - 그림 속에 동작은 움직이지 않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7. 다음 대화에서 화자의 말하는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도 (불안하게 그런 성삼문과 박팽년을 보며) 어째 말이 없느냐? 어떠하냐?
 박팽년 (침을 한 번 삼키고는) 채근하지 마시옵소서. 어찌 한 번에 판단할 수 있사옵니까?
 이 도 (실망하면서도) 그래그래……. 삼문이는 어떠하냐?
 성삼문 아직 어떠하냐라고 물으실 계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도 어찌…… 그러하냐?
 성삼문 목구멍소리…… 후음 말이옵니다. (과장하여 발음하며) 흐! 흐! 흐! 흐! 하! 하! 모음을 발음할 때와 구별점이 명확치 않을뿐더러, 후음만은 아직 상형이 되질 않았습디다.

박팽년 예, 이것은 아직 다 되질 않은 글자이옵니다.
 이 도 (기는 죽고 걱정도 되어) 냉정한 것들 같으니라고……. (하고는 바로) 그래…… 맞다. (하고는 조심스럽게)하여…… 그 이치를 알기 위해…….
 -김영현·박상연, 뿌리 깊은 나무 중에서-

- ① 세 명의 인물은 신분에 따라 존대와 하대를 하고 있다.
- ② 이도는 불안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③ 성삼문은 분명하면서도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④ 박팽년은 조심스럽지만 사려 깊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답) ②. [난이도 중, 희곡] - 예상한 문제 유형
 이도는 불안하게 말하고 있으나 단호함은 찾을 길이 없다.

8. 밑줄 친 ㉠~㉣ 행위와 그 주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 庶子桓雄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即太伯今妙香山)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而 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時神遺靈 艾一炷 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而 ㉢不得人身.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壇君王儉.

- | | | | | |
|---|----|----|-----|-----|
| | ㉠ | ㉡ | ㉢ | ㉣ |
| ① | 환인 | 환웅 | 호랑이 | 웅녀 |
| ② | 환웅 | 환인 | 곰 | 호랑이 |
| ③ | 환인 | 환웅 | 신웅 | 곰 |
| ④ | 환웅 | 환인 | 호랑이 | 웅녀 |

답) ④. [난이도 상, 한문] - 예상한 문제 유형
 『단군고기(檀君古記)』에는 이러한 말이 있다.
 “옛날 환인(桓因)[제석(帝釋)을 말한다.]의 서자 환웅(桓雄)이 있었는데, 종종 하늘 아래 세상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었다. 아버지가 자식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三危太伯)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그래서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고 내려가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삼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太伯山)[태백산은 즉 지금의 묘향산(妙香山)이다.]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神壇樹) 아래로 내려와서 그곳을 신시(神市)라고 불렀다. 이 분을 바로 환웅천왕(桓雄天王)이

라고 한다. 환웅천왕은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생명·질병·형벌·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시켰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항상 신웅(神雄, 환웅)에게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기도하였다. 이때 환웅은 신령스러운 썩 한 심지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곰과 호랑이는 이것을 받아서 먹었다. 곰은 삼칠일(21일) 동안 참아서 여자의 몸이 되었지만, 호랑이는 참지 못해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웅녀는 혼인할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신단수 아래에서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잠시 사람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하였고, 웅녀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이 분을 ‘단군왕검(檀君王儉)’ 이라 한다.

9.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작품은?

우리 선인들은 말에는 신성하고 예언적인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말이 씨가 된다.” 거나 “귀신 들는데 떡 말 말라.” 라는 속담이 그러한 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은 관찮더라도 일단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 말은 예언적이거나 주술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우리 문학사에서 언어가 힘을 지녔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작품이 적지 않은 것도 바로 그러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 ① 거북아, 거북아 / 머리를 내밀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 구워서 먹으리.
- ② 포롱포롱 나는 저 꾀꼬리 / 암수 서로 의지하고 있네.
외로울사 이 내 몸은 / 그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
- ③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남의 아내를 앗는 죄, 그 얼마나 큰가?
네가 만일 어기어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 구워 먹으리.
- ④ 동경 밝은 달에 / 밤들이 노니다가
들어 자리를 보니 / 다리가 넷이러라.
둘은 내해였고 / 둘은 누구헌고
본디 내해다마는 / 빼앗은 것을 어찌하리오.

답) ②. [난이도 중, 고전문학] - 예상한 문제 유형
주술적 내용이 없는 것을 찾으면 된다. ①의 <구지가>, ③의 <해가>, ④의 <처용가>는 모두 주술적 내용의 작품이다. ②의 <황조가>는 이별의 정한일 뿐 주술적 내용은 찾을 수 없다.

10. (가)의 내용에 이어지는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근대 자유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특정한 형태로서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진 후 거의 2,000년이 지나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다. 전체 서구 역사에서 볼 때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보다 먼저 출현했지만, 근대에 들어와서는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비해 200년이나 앞서 등장해서 그 후에 등장한 민주주의가 적응해야 하는 세계의 틀을 창조하였다. 곧 자유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가 설정한 한계 내에서 규정되고 구조화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거의 모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여성은 남편이나 부친을 통해 정치적으로 대표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거 하에 여성의 참정권을 부정하였다. 이처럼 자유주의자들은 참정권의 부여를 일정한 기준, 곧 재산 소유, 가장으로서의 지위 또는 공식적인 교육의 수준에 따라 제한하고자 했다.

(다) 따라서 로크는 묵시적 동의가 아니라 명시적 동의를 할 수 있는 유산 계급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했다. 또 프랑스 대혁명 기간 중에 제1차 국민회의의 헌법 제정자들은 능동적 시민권과 수동적 시민권을 구분하고, 정치적 권리를 납세자에게만 인정하였다.

(라)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오랫동안 대중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권을 도입하지 않는 민주주의자들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첫째, 그들은 대중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자와 사유재산제도 일반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보통 선거권의 도입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받은 정치가가 정권을 잡게 되면, 부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자에게 분배하는 등 급진적인 경제 개혁을 실시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둘째로 그들은 대중이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문화적 획일성·다양성에 대한 불관용 및 여론에 의한 전제 정치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자유주의자들은 투표권이란 합리성, 성찰 능력, 사회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지식 등을 전제하며 따라서 그러한 자질들을 가진 자들에게 부여되어야 하는데, 대중은 그러한 자질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공사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 ① (나)-(다)-(라) ② (나)-(라)-(다)
- ③ (다)-(라)-(나) ④ (라)-(다)-(나)

답) ④. [난이도 중, 글의 순서] - 예상한 문제 유형
대중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은 자유주의자(라) - 유산 계급과 납세자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함(다) - 여성의 참정권 부정(나-재산 소유, 가장으로서의 지위 또는 공식적인 교육의 수준으로 참정권을 제한함)

11.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은?

- ① 그는 발을 헛디더 하마트면 넘어질 뻔했다.
- ② 생각컨대 우두머리가 존재하지 않은 사회는 한 번도 없었다.
- ③ 아무튼 아버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 ④ 언니는 식구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 마당 청소를 할 정도로 부지런타.

답) ④. [난이도 하, 맞춤법] - 예상한 문제 유형
하마트면, 생각컨대, 아무튼

12. 우리말 표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같은 반 친구에게) 동건아, 선생님이 너 빨리 교실로 오라셔.
- ② (간호사가 환자에게) 이제 주사 맞으실게요.
- ③ (점원이 손님에게) 총금액이 65만원 나왔습니다.
- ④ (평사원이 전무에게) 과장님은 지금 외근 나가셨습니다.

답) ②. [난이도 하, 언어예절] - 예상한 문제 유형
'(간호사가 환자에게) 이제 주사 맞으시겠습니다.' 가 옳다. '~게요' 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제시 문처럼 쓰면 간호사가 주사를 맞겠다는 표현이 된다.

13. 밑줄 친 말의 쓰임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그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파천황(破天荒)의 사태였다.
- ② 그는 단말마(斷末魔)의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 ③ 우리는 육이오라는 미상불(未嘗不)의 대전란을 겪었다.
- ④ 남들의 백안시(白眼視)로 그는 괴로워하고 기를 펴지 못했다.

답) ③. [난이도 중, 어휘] - 예상한 문제 유형
'미상불(未嘗不)' 은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의 뜻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음' 이라는 의미인 '미증유(未曾有)' 가 적절하다.
① 이전에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처음으로 해냄을 이르는 말.
② 숨이 끊어질 때의 모진 고통.
④ 남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흘겨봄.

14. 다음 대화문에서 대명사 '우리' 의 용법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 ① A : 어제는 너한테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B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너희 잘못이 아니야.
- ② A : 어제는 정말 좋았어. 우리가 언제 또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니?
B : 그래, 나도 좋았어. 우리 다음에도 또 그런 자리 마련해 보자.
- ③ A : 우리는 점심에 스파게티를 자주 먹어.
B :그래? 우리는 촌스러워서 그런지 스파게티 같은 건 잘 못 먹어.
- ④ A :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 줘.
B : 알겠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도와주길 바랄게.

답) ②. [난이도 중, 어휘] - 예상한 문제 유형

- ②의 '우리' 는 A와 B 모두를 포함한다.
- ① B를 제외하고 화자를 포함한 사람들
- ③ B제외한 우리와 A를 제외한 우리
- ④ B를 제외하고 화자를 포함한 사람들

15. 어법상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내가 주장하고 싶은 점은 대중 스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② 실력 있는 강사진이 수강생 여러분을 직접 교육시켜 드립니다.
- ③ 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궁금한 점이나 작동이 잘 안 될 때는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④ 성과란 것을 무조건 양적인 면만으로 따진다는 것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답) ③. [난이도 중, 자연스러운 문장] - 예상한 문제 유형

- ① 내가 주장하고 싶은 점은 대중 스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 주술관계의 호응이 잘못되었다.
- ② 실력 있는 강사진이 수강생 여러분을 직접 교육해 드립니다. : '-시키다' 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나 작동이 잘 안 될 때는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대등성이 무너졌다.

16.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옛날 어느 나라에 장군이 있었다.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능력 있는 장군이었다. 하루는 전쟁터에서 휘하의 군사들을 점검하다가 등창이 나서 고생하는 한 병사를 만났다. 장군은 그 병사의 증기에 입을 대고 피고름을 빨아냈다. 증기로 고생하던 병사는 물론 그 장면을 지켜본 모든 군사들이 장군의 태도에 감동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그 병사의 어머니는 슬퍼하며 소리 내어 울었다.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묻자 그 어머니는 말했다. 장차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될 텐데,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이 병사의 어머니는, 교환의 질서와 구분되는 증여의 질서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 말뜻 그대로 보자면 교환은 주고받는 것이고, 증여는 그냥 주는 것이다. 교환의 질서가 현재 우리 삶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으뜸가는 원리가 등가교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증여의 질서란 무엇인가. 단지 주기만 하는 것인가. 일단 간 것이 있는데 오는 것이 없기는 어렵다. 위의 예에서처럼 장군은 단지 자기 휘하 병사의 병을 걱정했을 뿐이지만 그 행위는 다른 형태로 보답 받는다. 자기를 배려하고 인정해 준 장군에게 병사가 돌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목숨을 건 충성일 것이다. 어머니가 슬퍼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기도 했다. 내게 주어진 신뢰와 사랑이라는 무형의 선물을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교환이나 증여는 모두 주고받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아닌가. 이 둘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최소한 세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교환과 달리 증여는 계량 가능한 물질을 매개로 하지 않는다. 둘째, 교환에서는 주고받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선물을 돌려싼 증여와 답례는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증여는 ‘자연된 교환’이다. 셋째, 교환과는 달리 증여에는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않는다.

- ① 증여와 교환의 차이
- ② 어머니의 자식 사랑
- ③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
- ④ 장군의 헌신과 사랑

답) ①. [난이도 하, 중심내용의 파악] - 예상한 문제 유형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첫째, 교환과 달리 증여는 계량 가능한 물질을 매개로 하지 않는다. 둘째, 교환에서는 주고받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선물을 돌려싼 증여와 답례는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증여는 ‘자연된 교환’이다. 셋째, 교환과는 달리 증여에는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않는다.’ 증여와 교환의 차이가 옳다.

17. 다음 시의 할머니에게서 얻을 수 있는 삶의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그늘 내린 밭 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터다.
 보아 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한 번을 내리치는 데도 힘을 더한다.
 세상사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내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쇠아쇠아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도시에서 십 년을 가차이 살아본 나로서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파람을 불어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낸다.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쇠아쇠아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할머니의 가엾어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 김준태, 참깨를 털면서 -

- ① 지나침을 경계하고 순리를 따라야 한다.
- ② 자신의 체력을 알고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
- ③ 다른 대상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가져야 한다.
- ④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답) ①. [난이도 중, 현대시] - 예상한 문제 유형

성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음(過猶不及)을 일깨워 주고 있다. 즉 삶이란 결과뿐만 아니라 결과에 이르는 과정(순리에 따르는 삶)도 중요함을 일깨워 준 것이다.

<핵심정리>

- 갈래 : 서정시, 자유시
- 성격 : 대조적, 성찰적, 사색적, 서사적, 향토적
- 심상 : 시각적, 청각적
- 어조 : 일상적이고 평범한 어조
- 구성 : 1~4행: 참깨를 터는 할머니와 나
 5~11행 : 참깨를 털며 느끼는 나만의 기쁨
 12~16행 : 참깨를 터는 모습에 대한 꾸중과 반성
- 제재 : 참깨를 털면서 깨달은 느낌
- 주제 : 시골에서 얻게 된 깨달음과 연륜에서 나오는 삶의 지혜

1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주, 산호, 비취, 청옥, 백옥, 밀화의 구슬들이 일렁거리는 촛불 빛을 받아 오색의 빛을 찬연하게 뽐낸다.
 금방이라도 좌르르 소리를 내며 쏟아질 것처럼 소담한 구슬 무더기가 꽃밭이라도 되는가. 실날같이 가냘픈 가지 끝에서 청강석나비가 날개를 하염없이 떨고 있다.
 큰 비녀를 감으며 양 어깨 위로 드리워져 가슴으로 흘러내린 고운 검자주 비단 앞 땀기도 보이지 않게 떨리고 있다.
 앞 땀기에 물려진 금박과 진주, 산호 구슬들이 파르르 빛을 띤다.
 마당을 가득 채우며 넘치던 웃음소리, 부산한 발자국 소리, 그리고 사랑에서 간간이 터지던 흥소의 소리들도 이제는 잠잠하다.
 온 집안을 뒤덮던 음식 냄새조차도 싸늘한 밤공기에 씻기운 듯 어느 곁에 차갑게 가라앉아 있다.
 점봉이네가 부엌 바라지를 걸어 잠그는 삐이거억 소리가 난 것도 벌써 한참 전의 일이다.
 밤이 깊을 대로 깊은 모양이다.
 그러나 방 안의 두 사람은 아직도 말이 없다.
 -최명희, **혼불** 중에서-

- ① 여주인공의 당당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물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서사 시간의 흐름을 지연하는 서술자의 감정 이입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 ③ 서술자가 관찰한 사실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면서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 ④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서사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 준다.

답) ③. [난이도 중, 현대소설] - 예상한 문제 유형
 청각적, 시각적으로 관찰한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

최명희의 **혼불**은 ‘전라북도 남원 매안이씨(梅岸李氏) 낙남파(落南派)의 3대 종부(宗婦)인 청암부인, 율촌댁, 대실아씨 허효원의 종가(宗家)을 일으키고 지키려는 것과 매안이씨 종가에 이래저래 얽혀사는 거멍굴[黑谷] 상민과 그 당시 종모법(從母法)에 따라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던 종들의 얘기다.

<줄거리>
 1930년대 말 전북 남원의 양반촌인 매안 마을에는 상민들이 사는 거멍굴이 있다. 이 마을의 상민들은 이씨 문중의 땅을 부치며 살아간다. 매안 마을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이씨 문중의 종부(宗婦) 청암 부인인데, 그는 혼인한 지 일년 만에 청상이 되어, 남편의 동생인 이병의의 장자 이기채를 양자로 맞았다. 이기채는 청암 부인을 극진히 모시건

만, 이들의 가세는 점점 기울고 만다. 이기채는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강모이다. 그런데 종가의 장손으로 태어난 강모는 사촌 동생인 강실이를 좋아한다. 그래서 강모는 허효원과 결혼을 했을지언정 강실이를 잊지 못한다. 결혼 후 허효원 역시 강모에게 마음을 열지 않아, 이들은 5년간이나 합방을 하지 않는다. 이 때 강모는 징병을 피해 만주로 가게 되는 한편 청암 부인은 병세의 악화로 결국 죽고 만다. 사촌형 강태와 함께 만주에 도착한 강모는 그 곳에서 심진학 선생을 만나 참담한 고국의 현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심진학은 일본의 억압이 극에 달하더라도 그것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편 거멍굴의 상민들은 양반촌 사람들에게 억눌려 살아왔던 것에 대한 복수를 감행한다. 상민 춘복이는 이씨 문중의 강실이를 겁탈하고 이에 강실이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다.

- <주요인물>
- ▶ 청암부인 : 이씨 문중의 종부(宗婦)로 결혼한지 1년 만에 청상과부가 되어 이기채를 양자로 들임
 - ▶ 이기채 : 청암 부인의 시동생 이병의의 장자이나 청암 부인의 양자가 됨.
 - ▶ 강모 : 이기채의 아들로 청암 부인의 손자. 이씨 문중의 장손
 - ▶ 허효원 : 강모의 부인. 청암 부인에 이어 이씨 가문의 종부가 됨.
 - ▶ 강태 : 강모의 사촌형
 - ▶ 춘복 : 이씨 문중의 지배를 받던 상민이나 후에 강실을 겁탈함.

19. 다음은 ‘상춘곡(賞春曲)’의 일부이다.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 안에 들어갈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도화 행화)는 夕陽裏(석양리)에 띄어 잇고,
 綠楊芳草(녹양방초)는 細雨中(세우 중)에 프르도다.
 칼로 툄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造化神功(조화신공)이 物物(물물)마다 현스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春氣(춘기)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嬌態(교태)로다.
 () (이)어니, 興(흥) 이익 다룰소나.
 柴扉(시비)에 거러 보고, 亭子(정자)애 안자 보니,
 逍遙吟詠(소요음영) 허야, 山日(산일)이 寂寂(적적) 혼딕
 閑中眞味(한중진미)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 ① 醉生夢死(취생몽사) ② 一場春夢(일장춘몽)
- ③ 物我一體(물아일체) ④ 主客顛倒(주객전도)

답) ③. [난이도 하, 고전문학] - 예상한 문제 유형
봄 기운에 교태를 떠는 새와 시적 자아의 마음이 하나라는 것이다. 즉 ‘물아일체(物我一體)’에 해당한다.

20. 다음 글의 견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오륜(五倫)에 충실하고 오사(五事)를 옳게 하는 것은 사람의 예절이며, 때를 지어 다니고 어미 새끼가 서로 부르며 먹이는 것은 짐승의 예절이며, 떨기로 무성하고 가지가 뻗어 나가는 것은 초목의 예절이니, 사람으로서 다른 생물들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다른 생물들이 천하지만 다른 생물로서 사람을 보면 그들이 귀하고 사람은 천할 것이며, 하늘에서 전체를 보면 사람과 모든 생물이 균등할 것이다.”

- 홍대용, 의산문답(醫山問答) 중에서 -

- ① 기질로 말한다면 바르고 통하는 기(氣)를 얻은 것은 인(人)이 되고, 치우치고 막힌 기(氣)를 얻은 것은 물(物)이 된다. 바르고 통하는 가운데도 맑고 흐리며, 순수하고 불순한 구분이 있다. 치우치고 막힌 가운데도 이따금 통하기도 하고 아주 막히기도 하는 차이가 있다.
- ② 하늘이 명한 바에서 본다면, 범이나 사람이나 다 같이 물(物)의 하나이다. 하늘과 땅이 물(物)을 낳는 인에서 논한다면, 범이나 메뚜기, 누에, 벌, 개미가 사람과 함께 양육되어 서로 어그러질 수 없다.
- ③ 물(物)에는 저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저것으로부터는 보지 못하고 스스로 아는 것만 안다.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 때문에 생겨나고 이것은 저것 때문에 생겨난다.
- ④ 무릇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사람으로부터 소나 말, 돼지와 염소, 개미 같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법이랴오. 어찌 꼭 큰 생물만이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생물은 그렇지 않다 하겠소?

답) ①. [난이도 중, 글의 내용파악] - 예상한 문제 유형
사람과 사물을 바르고 치우친 것으로 구분했다. 이것은 인과 물이 같다는 필자의 견해에 어긋나는 것이다.

총평 : 2014년 지방직 국어 시험은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공부한 학생과 공부하지 않은 학생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국어규범과 관련된 것이 6문항 출제되었다. 이것은 작년보다 4문제 줄어들었다. 그러나 언제나 많은 비중으로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앞으로도 수험생은 신경써 공부해야 한다. 읽기는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는 작년보다 1문제 정도 많아진 것이다. 지문이 평이해서 침착성만 잃지 않았다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이 영역은 평소에 생소한 지문을 지속적으로 읽는 연습을 하면 쉽게 정복할 수 있다. 문학은 고전문학과 현대소설, 현대시, 희곡 등 5문제가 출제되었다. 작년보다 2문제 정도 많아진 것인데, 문학의 기초 감상법을 잘 익혀둔 학생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어휘는 작년과 동일하게 4문항 출제되었다. 평소에 어휘량을 최대한 많이 익혀두는 학습전략이 필요하다. 작년과 달리 7급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한문이 출제되었지만 단군신화에서 출제되어 내용의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제시문이 길어 자칫 그것을 모두 해석하려는 전략을 구사한 학생은 당황했을 듯하다. 앞으로도 한문은 잘 알려진 명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교재에 있는 한문 정도는 완벽하게 해석하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자는 매일 독음 위주로 읽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14년 7급 지방직은 수험생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한문이 출제되었으나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 체감 난도는 작년보다 1문제 정도 낮았던 시험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난도 상인 문제가 1문제, 난도 중인 문제가 12문제, 난도 하인 문제가 7문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최상위권 학생들은 95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실수를 감안하더라도 국어 점수는 90점 정도는 나와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분석된다.

[미소 강경욱 선생의 11/12월 강의계획]

- 강좌명 : 10월 나눔캠프 6 - 100원 특강
출제자의 눈으로 본 맞춤법 다잡기
- 시간 : 10/24(금) - 18:40~22:20
☞ 22일(수) 오후 1시부터 수강권 배부!
- 강좌명 : 9급/ 7급 미소국어 이론 완성반(2개월 완성)
- 시간 : 수목 - 18:40~22:20 (11/12개강)
☞ 미소국어 1권, 2권, 3권을 모두 수업합니다!
- 강좌명 : 출제자의 눈으로 본 기출문제 다잡기(11/3)
- 시간 : 월 - 09:00~12:50 (11/10개강)
☞ 2005~2014 재출제 가능한 모든 문제를 정리한다!
- 강좌명 : 곡곡 찍어주는 품사 & 단어/문장 & 표준발음
- 시간 : 수 - 14:00~17:50 (11/12개강)